# 조선에도 파산제도가 있었다?

글 이성주

[ 엽기조선왕조실록 ] 저자, 문화칼럼리스트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 조선에도 파산제도가 있었다?

조선 역시 사람 사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경제가 돌아야 하고,
상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각종 금융제도가 정비되어야 하죠.
그렇다면 조선의 파산제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조선 금융제도의 발달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은 개성상인이라 불리는 '송상' 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개치부법*을 널리 보급할 목적으로 '사개송도치부법' 을 편찬하거나, '환간' 이라는 어음을 만드는 등 각종 금융제도와 회계체계를 발전시켰죠.**

*사개치부법 : 우리나라 고유의 회계 방법으로, 개성상인을 중심으로 창안되어 개성상인과 전국의 상인들에게 전수되어 사용되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四介松都治簿法

**이들은 신용대출도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바로 '시변제' 입니다. '환도중' 이라는 금융중개인을 통해서 돈을 빌리려 하는 이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금융중개인 '환도중'이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신용보증을 대신 해주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신용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리려는 차입자의 신원이나 신상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오직 금융중개인인 '환도중'의 보증만을 믿고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건 신용대출의 상환률과 이자율입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신용대출이기에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
돈을 빌린 대부분의 사람이 빚 변제를 마쳤습니다.

**" 중개인인 환도중이 빚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에 한정해서 보증을 섰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자율은 오늘날로 치자면 연리 12% 정도였습니다.
지금과 비교해도 높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이자율이죠.

자,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대출도 있고, 중개인도 있었습니다.
부도와 파산이란 제도도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조선시대의 파산제도는 '낭만적' 이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선시대의 파산 방법은 '판셈' 인데요. 판셈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 판셈

**"빚진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의 전부를 내놓아 나누어 가지도록 하다"**

빚을 갚고 싶어도 더는 갚을 돈이 없으니, 자신의 재산을 모두 쌓아 놓고
채권자들에게 내놓는 것이죠.

## "이것밖에 없습니다. 알아서들 나눠서 챙겨가세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판셈'을 결심한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판셈'을 고지합니다.
그러면 채권자들은 저마다 남은 재산을 가지고 셈을 하죠.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더라도 부채는 분명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채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여기서 조선인들은 순박함과 사람 사이의 정을 보여줍니다.

## "오죽하면 판셈까지 했을까? 이 정도로 끝냅시다"

판셈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내놓는 것이고,
더 털어봐야 나올 게 없다는 판단 하에 꺼내든 최후의 선택입니다.

그렇기에 채권자들은 이 정도에서 모든 채무를
정리해주는 걸로 합의를 보는 것이죠.

다만 제도의 허점을 파고 드는 '소수'들은
고의적으로 판셈을 하거나, 습관적으로 판셈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거래의 기본은 신용인만큼, 신용을 무너뜨린 사람이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건 어려운 일이기에

**판셈은 최후의 수단이란 걸 당시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모습과 비슷한 듯, 조금은 다른
조선시대의 파산제도 이야기,
흥미롭게 읽으셨나요?

## 인문학으로 풀어본 재정의 역사 다음 편에서 만나요!